

## 믿음의 출발

창 12:1-5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과 굉장한 질적인 차이를 느껴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아브라함을 따라 갈 수 없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를 닮아가자’라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서 후대에 누구든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작부터 몇 주 동안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는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내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세계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떠나야 할 곳이고, 다른 하나는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것과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멸망할 세상, 죄악의 도시를 나타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갈대아 우르요,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면 어디에서 떠나야 할지를 알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네 친척과 네 집안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혼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한 조카 롯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또 창 11:31 을 보면, 그가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모두 데리고 바벨론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데라 일행은 하란에 다다라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식구들과 조카의 식구들을 데리고, 그것도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많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은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서쪽으로 돌아오는 길로 굉장히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반면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으로 가는 정말 어려운 길은 하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머물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기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조카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또 가라고 한 곳으로 바로 가지도 않았습니니다. 하란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혹시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과 주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하는데, 다 버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단번에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에 다니던 사람 중에 신학교에 오기 전부터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시절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목회를 나갔는데, 담배가 큰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은 어디론가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또 이상하게 예배드리기 전에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우고 난 다음입니다. 담배냄새를 지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다가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직까지 갈등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연대를 자세히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나이는 육십 세였고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칠십 오 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란에서 15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의 15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참 흥미 있는 사실은 ‘하란’이라는 말의 뜻이 “열매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창조적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월만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을 떠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연기하다”입니다.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묶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나타내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은 했지만 아버지 ‘데라’ 때문에 ‘연기하다’가 하란에서 15년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데라’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더 이상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욕심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지체한 15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기다리고 참으신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15년의 긴 방향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절에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아브람 일행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하란에서 방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떠나야 할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란이 있고, 데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란은 어디이며, 여러분의 데라는 무엇입니까? ‘데라’와 ‘하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